

# 소방공무원 자녀에 49년간 이어온 나눔 손길

록수장학회, 총 31명에 장학금 7090만원 전달

1976년부터 1244명 지원...누적 8억6200만원

광주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이어져 온 따뜻한 나눔이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6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재단법인 록수장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양진석 록수장학회 이사장(호원 회장), 이영훈 광주순환도 로투자㈜ 대표, 조광철 코비코㈜ 회장,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류경주 서광병원 경영원장, 김명균 아시아문화장학재단 이사장, 문재용 기아오랜드 광주공장장,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장학생, 장학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26명과 유가족 자녀 5명 등 총 31명에게 709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수여식은 국민의례와 장학재단 소개를 시작으로 축하 영상 상영, 장학기금 기탁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 대표의 소감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희망을 잇다, 미래를 기우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 상영과 함께 장학생들에게 직접 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따뜻한 격려가 이어졌다.

록수장학회는 1976년 설립 이후 49년 동안 광주지역 소방공무원 가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첫 장학금 지급 당시 7명에게 1인당 1만원을 전달하며 출발한 이 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1244명에게 8억6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장학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소방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애우’라는 설립 취지가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는 점이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6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재단법인 록수장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양진석 록수장학회 이사장(호원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이영훈 광주순환도로투자㈜ 대표, 조광철 코비코㈜ 회장,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류경주 서광병원 경영원장, 김명균 아시아문화장학재단 이사장, 문재용 기아오랜드 광주공장장,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장학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장학금 역시 지역 기업과 의료기관이 참여로 마련됐다. ㈜호원을 비롯해 광주순환(㈜), ㈜DHL글로벌, ㈜광주신세계, 코비코(주), 서광병원, (주)해양에너지,

기아(주) 등이 기탁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장학기금은 11억8000만원에 달한다. 장학회는 매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장학금 규모를 유지·확대하며 장

학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양진석 록수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자 한다”며 “장

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 뜻을 이어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도 “어르신 삶의 질 강화·사회적 관계망 확대”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 방안 모색

전남도는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의회 의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여수시니어클럽 관장, 복지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단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인 빈곤문제 대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강화, 참여자들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 발



전남도는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굴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

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다”며 “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8.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초고령 사회 진입

에 따라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5900여명 늘어난 7만 3000명으로 확대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박진표 광주일보 기자, 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당선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으로 박진표(52·사진) 광주일보 경제부장이 당선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6일 회장 단독 출마에 따른 찬반투표 결과, 박진표 후보가 77.96% (237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자기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문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총 496명 중 304명이 참여해 투표율 61.29%를 기록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박 당선인은 “이번 찬반투표는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회원들의 뜻이 담긴 과정이었다”며 “찬성과 반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견을 협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완도다어업회사법인, 완도고에 장학금 기탁

완도다어업회사법인(주)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랑 실천에 나섰다.

완도다어업회사법인인은 최근 완도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장학금은 해양·어업 인재 육성 장학사업, 성적 우수 학생 격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은 완도다에서 기획한 ‘적체전복 100t 소진 프로젝트’의 일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전복 생산 여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완도다는 학교급식, 국내의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개척해 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완도다는 ‘전복 음식 대중화·지역경제 활성



완도다어업회사법인(주)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랑 실천에 나섰다. 완도다어업회사법인인은 최근 완도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장학금은 해양·어업 인재 육성 장학사업, 성적 우수 학생 격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고법 ‘범죄전력과 양형’ 주제 실무위 개최

무거운 책임 부여 등 양형반영 주요 목적 달성 합의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범죄 전력과 양형·초범과 누범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광주고법 본원과 전주·제주지법, 광주지법 및 이하 지원 소속 형사법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전력이 실제 사건들에서 실행 또는 집행유예의 선택, 그리고 형량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살인, 성범죄, 재산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나눈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했다.

참석한 형사법관들은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보호의 필요성과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 등 양형에 반영하는 주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설법식 광주고법원장은 “범죄 전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재범 위험과 사회보호 필요성, 그리고 반복 범행에 대한 책임이라는 현실적 양형 판단 요소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양형실무위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범죄군에 따라 범죄전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범죄 전력과 양형·초범과 누범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력 인자가 실행 선택과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처벌받지 않아 피해 회복과 결합할 때 어떤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까지 그동안 각 재판부가 쌓아 온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형실무위는 ‘정답을 하나로 정해나가는 과정’이 아닌 서로 다른 사건과 서로 다른 법정에서 축적된 판단의 근거들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1000여 자원봉사자 뚝뚝한 지역 돌봄 실천

‘2025 신안군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성료

신안군여성자원봉사자회는 최근 자은면 라마다호텔&씨원리조트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신안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마음을 모아, 손길을 더해,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신안군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자원봉사 활동 영상 시청, 자원봉사 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 기념식과 함께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신안군자원봉사센터 입욕제 만들기 체험, 14개 읍·면 자원봉사 활동사진 전시, 신안경찰서·신안서평등상담센터 폭력 예방 홍보 부스 운영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안군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눈에 살펴보는



신안군여성자원봉사자회는 최근 자은면 라마다호텔&씨원리조트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신안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시간을 가졌다.

김대환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여성정책지원과장은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복지·환경·지역사회 봉사 등 여러 분야에 서 1만4000여건의 자원봉사 실적을 이뤄

냈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세심하고 촘촘한 지역 돌봄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조선대병원, ‘교직원 QI활동 사례발표회’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고객 만족을 위한 ‘2025년 교직원 QI활동 사례발표회’와 환자안전 활동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QI활동 사례발표회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시설, 시스템 등 의료서비스 전반의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활성화, 부서별 질 향상 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김진호 병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1·2부 구연발표를 진행했으며, 행운권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올해 QI 활동은 총 30개 팀이 참여했으며, 21개 주제로 QI활동(구연발표 6개 주제·포스터 전시 12개 주제)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 ‘진료비 수가 누락 및 처방 오류 감소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주제로 QI 활동을 펼친 진료비심사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선하 기자 goback@